



지난 8월 13일 열린 심장혈관연구재단의 후원금 전달식. 사진 왼쪽부터 박덕우 심장혈관연구재단 상임이사, 정광철 아산재단 사무총장.

심장혈관연구재단, 아산재단 장학사업에 매년 5천만 원 지원

심장혈관연구재단(이사장 박승정 울산의대 석좌교수)이 지난 8월 13일 아산재단에 후원금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서울아산병원에 연구기금 2억 3천만 원과 불우 환자 후원금으로 1천만 원을 지원하기도 한 심장혈관연구재단은 의생명과학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아산재단의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 장학금'의 취지에 공감해 금년부터 매년 5천만 원의 후원을 결정했다.

심장혈관연구재단은 2002년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심장학 연구 지원, 심혈관계 질환의 치료 방법에 대한 교육, 그리고 다양한 학술 회의를 개최하며 심장학 분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나누는 행복 | SOS 복지지원 대상자의 감사편지

※아산재단은 'SOS 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제도적 한계로 인해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돕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

되찾은
가족의
웃음,

이제 꼭
지킬게요

아산재단의 도움 덕분에 이제는 매일 방긋 웃는 두 딸의 환한 웃음과 아내의 미소를 볼 때마다 고마운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누구보다 행복한 우리 가족을 대표해 감사편지를 전합니다.

제 삶을 억누르는 부채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우리 가족의 표정은 언제나 어두웠습니다. 집주인에게 “한 달만 월세를 기다려 달라”는 염치 불고한 부탁을 한 지도 9개월이 넘어갔습니다. 집안 곳곳 가득히 붙은 경매 딱지를 장난감처럼 붙이고 때때로 노는 딸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은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이렇게 상황은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수많은 기관을 찾아 도와달라는 호소를 했지만, 건강보험료가 높다는 이유로 안 된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경매와 상관없이 재산의 명의를 여전히 제 이름 그대로라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것이 독이 됐습니다. 세금 체납도 많아서 서민금융지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보석 같은 둘째 아이의 출산을 눈앞에 둔 우리 가족이었지만 하루하루 숨 막히는 현실에 기쁨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도 부족했던 저는 답답할 때마다 아내에게 푸념하기 일쑤였습니다. 아내를 헤아리려는 노력보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써 눈앞에 닥친 고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미안함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아산재단의 SOS 복지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짧지만 길게만 느꼈던 심사 기간이 끝나고 아산재단의 지원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전화로 받았습니다. 아내를 부둥켜안고 평평 울었습니다. 그동안 가슴 속 깊이 숨겨왔던 미안함을 그날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산재단의 지원금이 통장에 들어온 그 날, 우리 가족이 그러도 행복했던 이유는 밀린 공과금을 처리해 마음 편히 따뜻한 물에 몸을 녹인 것도, 먹을 것으로 낙낙해진 냉장고 때문도 아닙니다. 가족의 밝은 모습 덕분이었습니다. 아산재단의 배려 덕분에 둘째 아이도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제가 책임져야 할 가족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웃음을 이제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은 아직 살 만한 곳이라고 느끼게 해준 아산재단의 손길을 절대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영이 아빠 김호연이

※아산재단은 'SOS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재단 산하의 아산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게도 SOS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

평
소
의

삶
을

살
게

해
준

도
움
의

손
길

저는 아산재단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은 광주광역시에 사는 박권석이라고 합니다. 평소 아산재단이 사회 공헌활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제가 도움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여 년 전 뇌전증 증상이 있던 저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다 쓰러져 뇌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어와 뇌변병 장애를 얻게 됐지만 그보다 더 답답했던 것은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두 아이와 함께해온 행복했던 기억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추억조차 간직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저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제 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를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어머니마저 치매에 걸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는 어머니를 보며 그동안 못했던 자식의 도리라도 다하고 싶었습니다. 낡았던 어머니의 집을 홀로 개보수하던 와중 실수로 발을 헛디뎠다 꽤 높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머리와 눈 옆까지 약 40cm의 열상과 늑골과 갈비뼈 3대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구조돼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의 후유증으로 목디스크가 발생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벌이가 신통치 않았던 저는 병원비 걱정에 차일피일 수술을 미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는 온몸이 쭈시는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도 어려워졌습니다.

수술을 꼭 해야만 했기에 조선대학교병원에 입원하던 순간부터 수술을 진행한 의사가 웃으며 “수술이 잘 됐다”고 전할 때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걱정은 바로 병원비였습니다. 벌어놓은 돈이 없는 상황이라 제 가슴은 타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죽으란 법은 없더군요. 조선대학교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로부터 아산재단의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덕분에 평소와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먼저 조선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사에게 감사합니다. 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봐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아산재단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와 같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천사와 같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줘 정말 감사합니다. 🍀

광주광역시에서 박권석 올림

